

핸들이 스스로 ‘빙글’... 미래형 버스 신기하네



Cover Story 부산 명물 ‘자율주행 버스’ 직접 타보니

관련기사 3면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레벨4’
법규따라 안전요원 동반 탑승
6거리 등 복잡한 교차로 많아
운전 어렵다는 부산 구도심이
자율주행시 학습 최적지된셈
탑승객 “TV서만 봤는데 신기”
이용자 만족도 66%로 높은편

“TV 뉴스에서만 보던 걸 직접 타보니 신기하네요. 승차감도 나쁘지 않고, 안전한 것 같습니다.”

손을 놓고 운전석에 앉아 운전하는 장면, 이제 더 이상 미래가 아닐지도 몰라요. 부산 자율주행 버스가 실증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지난달 30일 탑승한 부산 A01 버스와 A02 버스의 운전대는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운전석에 앉아 있는 안전요원이 액셀을 밟아 버스를 출발시키고 시간이 지나자, 버스 모니터에 ‘자율주행 중’이라는 안내 문구가 나왔어요. 이어 운전대에서 안전요원의 손이 떨어졌지만, 버스는 부드럽게 차선을 유지하며 나아갔습니다.

버스의 커다란 직사각형 모니터에는 현재 주행 상태를 알려주는 문구와 다음 신호등 신호까지 나와 있었어요. 차선 변경을 할 때도 방향지시등 표시가 실시간으로 송출되었죠. 이는 차량 외부에 탑재된 라이다(LiDAR)와 카메라 등이 360도로 주변 사물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 A01 버스와 A02 버스는 차량이 출발하거나 정지할 때와 돌발 상황일 때는 안전요원이 수동으로 운전대를 잡고, 주행이 일정 궤도에 오르면 시험운전자가 자율주행 모드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 ‘레벨 4’ 수준에 도달했지만, 국내 법규 문제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시험운전자와 안전요원이 탑승하고 있어요.

롯데몰 동부산점을 방문하러 오시리아관광단지를 찾은 강지은 씨(46)는 우연히 탑승한 자율주행 버스를 타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강씨는 “운전석에 기사분도 계셔서 위험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면서 “배차간격이 길어 대중교통이 불편한 외곽 지역에 자율주행 버스가 더 많이 보급된다면 편의성 측면에서 좋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오시리아관광단지 자율주행 버스는 6개월 동안의 시범 운영 후 진행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재이용 의향 65.9%의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지난달 9일에는 시범 운영을 마치고 부산광역시 최초로 유료로 전환됐죠.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한 1550원으로, 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과의 환승 할인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번 유료화는 향후 민관 협력을 통한 수익 구조와 민영화 바탕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는 오시리아 노선뿐만 아니라, 해운대에서 동래역을 잇는 심야 노선과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노선을 시범 운행하며 실증 범위를 넓혀 가고 있어요.

이승한 부산광역시 교통혁신과 지능형교통팀장은 “6거리 등 복잡한 교차로와 산을 지나는 도로, 다소 과격한 부산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이 얽힌 구도심 도로 환경이 역설적으로 자율주행 AI 학습을 위한 최고의 실증 조건”이라며 “정부 계획에 발맞춰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완전 무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부산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준영 인턴기자



아르테미스 2호가 달 뒷면을 보고 온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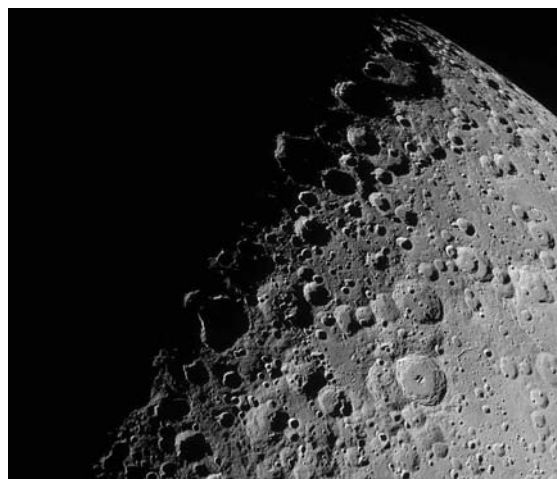


세계는 지금
World News



2026년 4월 1일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되는 아르테미스 2호.

NASA·Bill Ingalls



아르테미스 2호가 촬영한 달 뒷면의 명암경계선. 낮은 각도의 햇빛이 크레이터와 지형을 극적으로 드러낸다. NASA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 2호(Artemis II)를 발사했습니다. 아폴로 17호 이후 54년 만에 재개된 유인 비행이었으며, 약 10일간 지구와 달 궤도를 비행하며 달 착륙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특히 오리온 우주선의 생명 유지 시스템을 승무원이 탑승한 상태에서 시험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해 달 표면 근접 관측, 우주 방사선 환경 데이터 수집 등 다양한 업무를 맡았습니다. 10일 아르테미스 2호의 승무원들은 인류 역사상 최장 거리를 이동한 신기록을 세우고 모든 임무를 마친 뒤 안전하게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의미는 단순한 유인 달 탐사의 재개를 넘어, 우주 산업의 성장성을 확인했다는 데 있습니다. 미국 우주재단(US Space Foundation)은 2024년 글로벌 우주 산업 규모가 최근 5년간 연평균 7.6% 성장했다고 분석했으며, 조단위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우주가 미래 전략 산업으로 인식된 것에 따른 결과로 평가

됩니다.

최근 우주 개발의 주도권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동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우주 산업에 뛰어들 배경에는 높은 경제적 가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달에는 희토류와 헬륨-3 등 핵심 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향후 화성 탐사를 이어 가기 위한 정류장이나 환승센터를 짓는 등 전초기지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죠. 여기에 데이터센터와 같은 인프라스트럭처를 우주로 확장하려는 시도까지 더해지며 새로운 경제 영역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규제가 미비하고, 이를 통제할 단일 주체가 부재해 빠른 선점이 곧 경쟁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각국은 우주 패권 확보 경쟁에 더욱 속도를 내게 되었죠. 미국은 아르테미스 계획을 통해 유인 달 탐사와 화성 탐사의 기반을 구축하고, 중국 역시 창어(嫦娥) 계획을 통해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박연수 인턴기자

경제뉴스 어렵다면? AI 퀴즈로 즐겁게 공부하세요

매경미디어가 경제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뉴스퀴즈’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AI가 매일경제 최신 기사를 바탕으로 매일 문제를 내고 이용자의 정답과 오답에 피드백해드립니다. 10대 독자들이 게임을 하듯 재미있게 경제 지식을 습득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AI는 하루 뉴스 중 중요 이슈를 선별해 5문제를 제시합니다. 경영, 시사상식, 경제 등 세 영역의 퀴즈를 골고루 출제합니다. 이를테면 ‘중국이 아프리카 여러 나라

와의 교역을 늘리기 위해 설탕·수산물 등 수입품에 매기던 관세를 없애는 ○○○ 조치를 시행한다. 빈칸에 들어갈 용어는?’이라는 문제가 제시됐습니다. 정답은 ‘무관세’입니다. 퀴즈가 어려우면 ‘힌트 보기’와 ‘뉴스 읽기’ 기능을 통해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매일경제 AI 뉴스퀴즈는 홈페이지(mk.co.kr/aigames/newsquiz) 로그인 후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해 다양한 퀴즈를 풀어보세요. 박창영 기자



경제공부 필수품
온·오프라인
서점서 만나세요



회장
발행·편집·인쇄인

장대한
장승준

등록번호 : 서울,다50736
발행간격 : 주간
발행소 : 04627 서울 중구 퇴계로 190 매경미디어센터

매일경제아카데미 이메일
구독 문의
광고 문의

teen@mk.co.kr
(02) 2000-2383
(02) 2000-2200

매경·금융저축정보센터 기획 후원 신한은행 KYOBO 우정사업본부 MERITZ 한국투자증권



美·中은 곳곳에 무인택시... 왜 한국에선 잘 안 보일까



도로를 달리는 웨이모 로봇택시. 웨이모

자율주행 기술은 실증 단계를 넘어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어요.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은 2025년 약 2000억달러에서 2034년 3500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죠.

미국과 중국은 방대한 주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레벨 4를 상용화했어요. 자율주행 레벨 4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도 차량 스스로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해요. 구글의 웨이모(Waymo)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 2500대 이상의 무인 택시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시내를 넘어 고속도로 구간까지 서비스를 전격 확대했죠. 중국도 빠르게 상용화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한시 도심에는 바이두의 완전 무인 로봇택시가 400대 이상 운행 중이에요. 바이두의 로봇택시는 1억7000만km 이상의 누적 주행거리를 바탕으로 우한시 전역을 능숙하게 누비고 있죠.

반면 한국의 자율주행 현주소는 미국·중국과 비교하면 아쉬운 수준입니다. 국내 자율주행 기업 전체를 합친 누적 실증 거리는 1306만km, 총운행 대수는 132대 수준에 불과하죠. 이는 선도국의 단일 기업 실적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웨이모와 바이두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한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 평가에서도 한국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조아라 세종대 AI로봇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미국, 중국을 빠르게 쫓아가는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 위치”라며 “웨이모와 비교할 때 한국의 스타트업들은 인력, 투자 자본, 누적 주행 마일리지 모두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사실 한국의 자율주행 산업이 처음부터 뒤쳐져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현대차는 2010년대 중반부터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양산차에 적용했고, 제도적으로도 2016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율주행차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죠. 그렇다면 한국이 자율주행 경쟁에서 뒤쳐진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이 ‘갈라파고스 규제’와 ‘기존 산업과의 갈등’입니다.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의 핵심은 AI를 학습시킬 수 있는 방대한 주행 영상 원본의 확보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로막혀 원본 데이터를 마음껏 활용하지 못했어요.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수동 주행으로 전환해야 하는 법규 탓에 실증 테스트의 맥이 끊기곤 했습니다.

기존 운수 산업과의 갈등 구조도 거대한 장벽입니다. 한국 택시 업계는 2013년 ‘우버(Uber)’, 2018년 ‘타다’ 등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강력하게 반발하곤 했어요. 이때 정부나 국회는 이해관계자 간 타협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전통 택시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신산업의 진출을 제한하곤 했죠.

위기감을 느낀 정부도 최근 대대적인 규제 철폐에 나섰다. 2027년에 자율주행 ‘레벨 4’ 상용화를 목표로 광주광역시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한 것입니다. 정부는 광주광역시에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를 투입해 레벨 4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려 합니다. 또한 원본 영상 데이터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자율주행도 조건부로 허용할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와 함께 명확한 국가적 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신강원 경성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자율주행 대중교통은 기존 교통수단을 대체하기보다 수요가 적은 외곽 지역이나 심야 시간대, 관광지 순환노선처럼 상대적으로 공백이 있는 영역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조 교수는 “국가적 차원에서 기업과 기관들이 주행 마일리지, 수집 데이터, 학습용 컴퓨팅 인프라 자원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K자율주행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준영 인턴기자

자율주행 경쟁 뒤쳐지는 한국
美샌프란시스코 연중무휴 운행
중우한에선 도심 능숙하게 누버

모빌리티 규제에 발목잡힌 한국
AI학습 위한 주행데이터 못쌓고
국내 택시업계 반발에 지지부진

K자율주행 협력 생태계 조성

점점 짧아지는 히트곡의 비밀



영문뉴스/NIE 돋보기

Why are the songs getting shorter?

Recent music charts reveal a clear trend: many popular songs now run under three minutes. This marks a **noticeable** shift compared to the 2010s, when the average song length **hovered around** three minutes.

According to major streaming platform Spotify, this change is closely tied to the rise of short-form content. Platforms like TikTok popularize “challenges”, where users create videos set to specific segments of a song. When listeners are captivated by these **snippets**, they often end up listening to the full track. In this way, modern social media acts as a gateway to discovering new songs.

Since people already heard the highlights, they prefer to skip the intro and jump straight to the core melody. This shift in listening habits has influenced how artists structure their songs. Many now place the chorus early and keep songs concise. Additionally, as many streaming platforms only count plays after around 30 seconds, shorter tracks are easier to loop, leading to more streams and ultimately more revenue. This system further accelerates the popularity of short tracks.

Shorter songs are not **merely** a stylistic shift but a structural change driven by short-form content, listening habits, and streaming mechanics.



게티이미지뱅크

한눈에 보는 기사요약

최근 음악차트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많은 인기곡이 3분을 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10년대만 해도 평균 노래 길이가 약 3분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대형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Spotify)에 따르면, 이는 숏폼 콘텐츠의 대중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틱톡과 같은 숏폼 플랫폼에서는 ‘챌린지’라는 형태로 음원을 편집해 춤을 추는 콘텐츠가 유행합니다. 그렇게 편집된 음원에 매료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곡 전체를 찾아 듣게 됩니다. 현대 소셜미디어는 새로운 음악을 접하는 창구로 작용하는 셈입니다.

이렇듯 이미 음악의 하이라이트를 경험한 사람들은 도입부를 뛰어넘고 바로 핵심 멜로디를 듣고 싶어 합니다. 이런 청취 습관은 음악 제작자들의 전략에도 반영됩니다. 아티스트들은 초반부터 후렴구를 배치하고, 곡을 짧게 유지합니다. 더불어 많은 스트리밍 플랫폼은 30초 이상 재생되어야 스트리밍으로 인정하므로, 짧은 곡일수록 반복 재생이 용이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스트리밍 수와 수익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짧은 곡의 확산을 가속화합니다.

결국 노래가 짧아지는 현상은 단순한 스타일 변화가 아닌 숏폼의 유행, 청취 습관, 그리고 스트리밍 구조가 맞물리면서 만들어낸 음악 산업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유용한 단어 및 표현

Hover around: ‘(무엇의 가까이) 맴돌다’라는 뜻으로, ‘The show’s viewer ratings hover around 20 percent’라고 하면, ‘그 드라마의 시청률은 20퍼센트를 맴돌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Noticeable: ‘뚜렷한, 분명한’이라는 뜻이에요. 본문의 ‘a noticeable shift’는 ‘뚜렷한 변화’라는 의미죠. 예문 ‘It was noticeable that my brother ate that cake’의 뜻은 ‘내 남동생이 그 케이크를 먹은 것이 분명했다’가 돼요.

Snippet(s): 전체 중 일부만 잘라낸 작은 부분을 뜻해요. 예시로 ‘A snippet of Justin Bieber’s new album was leaked’라고 하면, ‘저스틴 비버의 새 앨범의 일부가 유출되었다’라는 뜻이에요.

Merely: ‘단지, 그저’의 뜻이에요. 예시로 ‘It is merely a test, don’t be nervous’는 ‘그건 그저 시험일 뿐이야, 긴장하지 마’라는 의미가 돼요.

기사 이해도 체크!

Q. According to the article,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 ① Many popular songs now run under three minutes.
- ② Modern social media acts as a gateway to discovering new songs.
- ③ People prefer to jump straight to the core melody.
- ④ Many streaming platforms only count plays after about 60 seconds.
- ⑤ Short-form content affects people’s listening habits.

해설: 기사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④번은 대다수의 스트리밍 플랫폼이 60초 이상 재생되어야 스트리밍으로 인정된다고 하지만, 기사에서는 30초 이상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형세미 연구원

“하루 한 잔 우유”... 이젠 옛말 됐어요



꼭 알아야 할
최신 뉴스

1인당 우유 22.9kg...1980년대 이후 최저

‘하루 한 잔 우유’라는 말이 점점 옛말이 되고 있어요. 국내 흰우유 소비가 4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우유 소비량은 22.9kg으로 전년보다 9.5% 감소했어요. 이는 1980년대 후반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우유 소비가 줄어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식습관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성장기 간식으로 우유가 필수처럼 여겨졌지만, 요즘은 다양한 음료가 등장하면서 선택지가 넓어졌어요. 또한 일부 소비자들은 유당불내증이나 칼로리 부담을 이유로 우유를 피하기도 해요.

▶ NIE 준비하기

1. 흰우유 대신 식물성 음료를 선택하는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식물성 음료가 인기를 끄는 데 환경 문제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반면 두유, 오트밀크, 아몬드밀크 같은 식물성 음료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지난해 관련 시장은 전년 대비 약 7~9% 증가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어요. 관련 기업들은 콩, 아몬드, 오트 등 원료를 기반으로 저당, 고단백 등 기능별로 제품을 세분화하며 시장을 확장하고 있어요.

“연차 2시간만 쓸게요” 시간 단위 연차 도입

앞으로는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연차를 사용할 때 하루, 반차, 반반차까지만 가능했는데요.

지난 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는 2시간, 3시간처럼 필요한 만큼 쪼개서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예를 들어 병원에 잠깐 다녀오거나 개인 일정이 있을 때 훨씬 편해지는 셈이죠.

근로시간과 휴식 방식도 바뀌었는데요. 기존에는 하루 4시간만 일해도 중간에 30분 휴식을 반드시 가져야 했지

▶ NIE 준비하기

1. 연차를 시간 단위로 쓸 수 있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 가장 유용할까요?
2. 연차 사용 불이익 금지 규정이 실제로 잘 지켜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만 앞으로는 노동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면 휴식 없이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됐어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연차를 썼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어기면 사용자에게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돼요.



7~9%

식물성 음료 시장 성장세

500만원

연차 불이익 시 최대 벌금

5.3배

주말 공부 시간 격차

공부시간 격차 평일은 3배...주말 5.3배

‘왜 친구만 계속 성적이 오를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면, 그 답 중 하나는 주말 공부 시간일 수도 있어요.

진학사가 고등학생 3522명을 조사한 결과, 상위권과 하위권 학생의 공부 시간 차이는 주말에 더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평일에는 등급 간 공부 시간 격차가 약 3배 수준이었지만, 주말이 되면 이 차이는 5.3배까지 커졌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평일 기준 하루 4시간 이상 공부하는 비율은 1등급이 55.0%, 5등급 이하가 18.9%로 약 2.9배 차이가 났지만 주말에 하루 6시간 이상 공부하는 비율은 1

▶ NIE 준비하기

1. 주말 공부 시간을 늘리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2. 여가 시간을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은 선택인지 논의해 보세요.

등급이 46.8%, 5등급 이하는 8.8%였어요. 전문가들은 학교와 학원 때문에 평일엔 공부 시간 차이가 크지 않지만, 주말처럼 스스로 시간 관리를 할 때 실력 차이가 드러난다고 봐요. 실제 성적이 오른 학생 1061명을 조사한 결과 88.2%가 공부 시간을 늘렸다고 답했습니다. 배윤경 기자

내가 사장이라면? ... 체험하며 깨닫는 수요와 공급



소비자원 기고



게티이미지뱅크



‘소비생활과 경제’

오늘날 시장 모습은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전통시장이나 오프라인 상점 중심이던 거래 공간은 이제 인터넷 쇼핑몰, 중고 거래 플랫폼, 실시간 방송 판매 등 온라인으로 폭넓게 확장됐다. 형태는 바뀌었지만 소비자와 생산자

가 만나 사고파는 본질은 그대로다. 소비생활과 경제 교과서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시장 환경의 변화와 소비문화’ 단원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시장의 의미와 구조를 이해하고, 변화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소비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디지털 소비 환경의 특징부터 청소년기의 소비문화와 가치까지 함께 다루며 현대 소비생활을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이어서 시장을 이루는 세 주체, 즉 소비자·생산자·정부의 역할을 소개한다. 소비자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생산자는 이를 만들어 공급하며, 정부는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제도와 규칙을 마련한다. 시장은 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움직이는 공간이다. 특히 소비자의 선택이 생산자의 생산 방향과 시장 변화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역할이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을 짚는다.

수요와 공급 원리도 핵심 학습 내용이다. 특정 물건을 원하는 사람이 늘면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오른다. 반대로 물건은 많은데 찾는 이가 적으면 가격은 내려간다. 일상 속 가격 변화가 우연이 아니라 일정한 경제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소비 상황에서도 가격과 선택을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힘이 생긴다.

이 단원이 눈에 띄는 이유 중 하나는 체험 중심의 수업 구성이다. ‘모의 시장 체험하기’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 역할을 직접 맡아 거래 과정을 경험

한다. 판매 물품을 기획하고 소개한 뒤 구매 계획을 세우고 거래 기록지까지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시장의 구성 요소와 거래 원리를 몸으로 익히게 된다. ‘외딴섬에서 살아남기’ 활동에서는 제한된 자원을 경매 방식으로 구매하며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 변동 원리를 게임처럼 체험한다. 딱딱한 경제 개념을 자연스럽게 흡수하도록 설계된 방식이다.

디지털 소비 환경을 다루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스마트폰 하나로 가격을 비교하고 언제 어디서든 주문할 수 있는 편리함은 이미 일상이 됐다. 모바일 결제, 빠른 배송, 해외 직구, 인공지능 추천 서비스는 소비를 더욱 손쉽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 단원은 편리함만 조명하지 않는다. 간편 결제는 충동구매와 과소비를 부추길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따른다. 배송 증가로 인한 포장 쓰레기 같은 환경 문제도 짚는다. 학생들이 과거와 현재의 소비 모습을 비교하고, 미래 소비를 상상해 보도록 구성함으로써 변화를 비판적으로 읽는 눈을 키운다.

청소년기의 소비문화와 소비 가치에 대한 내용 역시 중요하게 다룬다. 유행과 또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영향을 크게 받는 청소년은 필요보다 분위기가 감정에 이끌린 소비를 하기 쉽다. 반면 최근에는 지속 가능한 소비, 윤리적 소비처럼 의미와 가치를 중시하는 흐름도 뚜렷하다. 이 단원은 ‘1020 세대의 소비문화 탐구하기’ 활동을 통해 소비문화를 탐구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신의 소비 성향을 돌아보고 어떤 기준과 가치에 따라 소비하는지 스스로 성찰할 기회도 마련했다.

이 단원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시장 원리를 이해하는 경제적 안목을 기르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소비 태도를 익히며, 사회와 환경까지 고려하는 책임 있는 소비자로 성장하는 것이다. 다양한 활동을 중심에 둔 구성은 학습 참여도와 기억 지속력을 높이고 실생활 속에서 실천할 힘을 길러줄 수 있다.



백수현 신암중학교 교사

실리콘밸리 배달비가 한국보다 비싼 이유는?



게티이미지뱅크



최병일 교수님의
길 위의 경제학

요즘 우리는 휴대전화 화면을 몇 번만 눌러도 음식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부터 서울, 베트남 하노이에 이르기까지 배달 앱을 사용하는 모습은 전 세계 어디서나 비슷합니다. 하지만 배달 서비스의 형태는 닮았어도 그 비용은 꽤 다릅니다. 실리콘밸리의 배달 수수료는 대략 4000~9000원 정도이며 한국은 1000~4000원, 하노이는 600~1200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음식을 배달시키더라도 국가와 도시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와 같은 현상을 설명할 때 경제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보멸의 비용병(Baumol’s Cost Disease)’입니다. 이는 현대 미시경제학의 거목이자 프린스턴대 교수였던 윌리엄 보멸(William Baumol)이 1960년대에 정립한 이론입니다. 보멸은 당시 공연 예술 산업을 연구하며 흥미로운 의문을 던졌습니다. “현악 4중주를 연주하는 데 필요한 인원과 시간은 18세기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왜 연주자들의 임금은 과거보다 계속 올라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연구 끝에 어떤 산업은 기술 혁신 덕분에 노동 생산성이 빠르게 향상되는 반면, 서비스 산업은 시간이 흘러도 노동 시간을 줄이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보멸의 이론에 따르면 TV나 반도체를 생산하는 제조업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같은 시간에 훨씬 더 많은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반면 이발, 돌봄, 교육, 배달과 같은 서비스 산업은 사람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물리적 시간이 본질기에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어렵습니다. 머리를 자르는 데 걸리는 시간이나 음식을 문 앞까지 전달하는 시간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서비스 산업의 임금이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의 임금 상승에 맞춰 함께 올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배달 기사나 이발사의 수입이 다른 산업의 임금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노동자들은 더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업종으로 모두 빠져나가 서비스 자체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특정 산업의 생산성은 정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의 평균임금이 오름에 따라 비용이 상승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보멸 효과’의 핵심입니다.

미국 노동통계국(BLS) 자료를 보면 이 차이가 더 명확해집니다. 1997년부터 2015년 사이 TV 가격 지수는 무려 94%나 하락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격이 하락했다는 의미보다는 경제학적으로는 가치가 상승한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1997년의 100만원짜리 TV와 2015년의 100만원짜리 TV를 비교하면, 후자는 대형 화면과 초고화질을 갖추고 있어 성능 면에서 압도적입니다. 가격은 그대로인데 성능이 20배 좋아졌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20분의 1로 떨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면 이발이나 배달 서비스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투입하는 노력의 양이 비슷합니다.

배달 서비스 역시 앞에서 살펴본 서비스 산업 특징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주문 앱과 배차 알고리즘은 최첨단이지만, 음식을 포장해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길을 지나 집 앞까지 오는 ‘물리적 시간’은 기술만으로 줄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처럼 노동자의 몸값이 높은 지역은 같은 30분 배달이라도 그 노동에 매겨지는 경제적 가격표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전반적인 소득 수준과 생활비가 높기 때문에 사람 한 시간의 가치가 매우 높게 책정됩니다. 반면 하노이는 다른 산업의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배달료 또한 저렴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불하는 배달료 차이는 그 사회가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의 물가 수준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물론 배달료가 산출되는 과정을 보멸 효과 하나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정책, 광고비 부담, 배달 기사의 수급 상황, 시장의 경쟁 정도와 정부의 규제 같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플랫폼의 독점적 영향력 때문에 식당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치열한 경쟁 덕분에 소비자 배달료가 낮게 유지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배달비를 대할 때는 단순히 비용의 높고 낮음을 따지기보다, 그 이면에 숨겨진 경제적 구조와 우리 사회의 노동 가치를 함께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멸이 발견했듯, 사람의 정성과 시간이 본질인 서비스 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다는 역설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강원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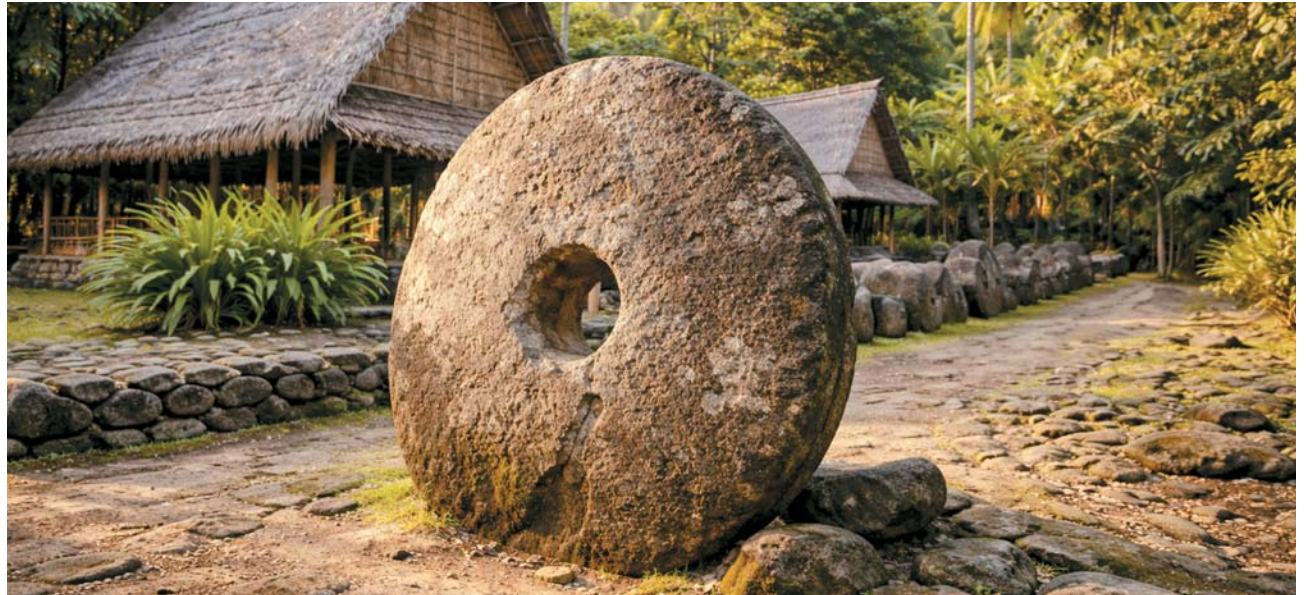
경제용어 CHECK

미국 노동통계국(BLS)
미국 노동부 산하의 통계 기구이다. 이곳은 노동 시장의 활동, 실질적인 근로 조건, 그리고 경제 내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연방정부의 주요 기관이다. 소비자 물가지수(CPI)와 실업률 같은 국가의 중추적인 경제 지표를 조사하고 발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이 제공하는 객관적인 데이터는 정부의 경제 정책 수립은 물론, 기업의 투자 결정과 가계의 소비 계획에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돈... 신뢰의 무게



임하빈 선생님의
돈이 움직인 세계사



야프섬의 거대한 라이석.

ChatGPT

태평양 한가운데 작은 섬, 야프(Yap)에는 곳곳에 구멍 난 둥근 돌들이 서 있습니다. 한 손에 들만 한 것도 있지만 지름이 1~2m에 달하고 무게는 수 t에 달할 정도로 거대한 것도 있습니다. 이 돌들의 정체는 야프섬의 돈, ‘라이(rai)’입니다. 어떻게 이런 돌덩이에 가치가 있을까요? 또 어떻게 돈으로 사용될 수 있었을까요?

돌덩어리가 돈이 된 이유

야프에는 금과 은도 없었습니다. 교환 수단으로 쓸 만한 귀한 물건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야프인들이 400km 떨어진 팔라우에서 아라고나이트라는 돌을 발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라고나이트는 빛이 나고 아름다운데 야프에는 없는 돌이어서 돈으로 쓰이기에 적절했습니다. 가져오기 어렵다는 점도 장점이었습니다. 야프인들은 카누나 뗏목을 타고 팔라우까지 건너가 돌을 캐서 가공한 뒤 다시 야프로 실어왔습니다. 이 힘든 과정 중 풍랑을 만나 목숨을 잃는 일도 드물지 않았습니. 그래서 같은 크기라도 운반 중 희생이 컸던 돌이 더 큰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신뢰가 돈이 되다

그렇다면 라이는 실제로 어떻게 사용됐을까요? 거래가 이뤄져도 돌 자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 땅을 사거나 혼인 지참금을 치를 때, 섬사람들 앞에서 “저 돌은 이제 당신 것”이라고 선언하면 그걸로 거래 종료였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팔라우에서 라이를 싣고 오던 배가 폭풍을 만났습니. 돌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고,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섬사람들에게 알렸습니. “돌은 가라앉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봤습니.” 가라앉은 돌은 그대로 주인의 재산이 됐고, 이후 거래에도 사용됐습니.

이 신뢰를 역으로 이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19세기 말 야프를 지배한 독일은 도로 공사를 시키려 했지만 야프인들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 그러자 독일 관리들은 섬 곳곳의 라이에 검은 십자기를 그려 넣었습니. “이 돌은 이제 독일 정부 것”이라는 표시였습니. 돌을 옮기지도, 부수지도 않았습니. 그런데 야프인들은 즉시 도로를 만들

기 시작했습니다. 도로가 완성되자 독일은 십자기를 지워줬고, 라이는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습니. 돌에 표시 하나를 더했을 뿐인데 야프인들이 즉각 반응한 것, 그것이 라이에 대한 신뢰의 크기였습니다.

라이의 위기

19세기 후반, 아일랜드계 미국인 선장 데이비드 오키프가 야프섬에 등장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야프섬에 풍부한 코코넛이었습니다. 당시 코코넛에서 짜낸 기름은 동아시아에서 수요가 컸는데, 문제는 야프인들이 외부 물건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이 모두 섬에서 해결됐으니 외부 상인의 물건을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오키프는 증기선에 최신 장비까지 동원해 팔라우에서 라이를 대량으로 생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만들어진 라이를 야프로 가져왔고, 야프인들은 일단 라이를 받고 코코넛을 내줬습니. 오키프는 이 코코넛을 홍콩에 팔아 이익을 챙겼습니.

그런데 추장들은 오키프의 돌 가치를 기존 라이보다 훨씬 낮게 매겼습니. 목숨을 건 항해도, 희생도 없이 만들어진 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무효로 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키프의 돌을 부정하면 공동체의 합의로 가치가 결정된다는 라이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니까요. 결국 오키프의 돌은 낮은 가치로나마 유통됐고, 섬에 넘쳐나는 라이의 양만큼 전체 가치는 떨어졌습니다. 야프 최초의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600년의 시간을 건너

세계 어디에도 없는 특이한 화폐인 것 같지만, 사실 라이의 원리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금, 은, 지폐, 심지어는 조개껍데기나 돌덩이, 화면 속의 숫자조차도 사람들이 믿기로 합의한 이상 화폐가 됩니다. 2009년 등장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물도 없고 발행 기관도 없지만, 컴퓨터가 연산하며 비트코인을 생성하는 ‘채굴’이 어려워질수록 가치가 높아지고 블록체인이라는 공동의 장부 위에서 거래됩니다. 야프섬 사람들이 600년 전에 만들었던 시스템을 디지털 기술을 통해 다시 만든 셈입니다.

산현초등학교 교사



역사용어 CHECK

블록체인

거래 내역을 여러 참여자가 함께 기록하고 검증하는 분산형 장부 시스템입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핵심 기술로, 특정 기관 없이 네트워크 참여자 전체가 장부를 공유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있을까



게티이미지뱅크



운영소 선생님의
내일을 여는 책갈피

허먼 멜빌 '필경사 바틀비'

사람들은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지만, 참으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살고 싶은 곳에서 살고 있을까요? 스스로를 들여다보더라도, 원치 않으면서도 마지못해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은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일상이자 삶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 일상도 크게 다르지 않지요? 하기 싫은 숙제, 억지로 나가는 학원, 어른들이 당연하다는 듯 시키는 온갖 것들. 그럴 때마다 딱 한마디로 상황을 끝낼 수 있다면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요.

허먼 멜빌의 단편소설 '필경사 바틀비'는 1853년에 발표된 미국 소설이에요. 멜빌은 그 유명한 대작 '모비딕'의 작가랍니다. 거대한 흰고래를 잡기 위해 목숨을 건 선장 에이헤브와 선원들의 이야기로, 인간의 집착과 운명을 웅장하게 그려낸 세계 문학의 고전이에요. 진정한 벽돌책이지만, 살면서 한 번은 꼭 읽어봐야 할 작품입니다. 벽돌책을 소화하기 힘들지만, 긴 호흡을 길러주고 또 그만큼의 감동과 교훈이 오래오래 갑니다.

다시 오늘의 주인공 바틀비 이야기를 하지요. 이야기는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의 한 법률 사무소에서 시작돼요. 문서를 손으로 베껴 쓰는 일을 하는 '필경사'가 필요해진 변호사는 바틀비라는 청년을 고용해요. 처음엔 정말 열심히 일해요. 밥도 잘 안 먹고, 쉬지도 않고, 묵묵히 글씨만 써 내려가죠. 변호사는 꽤 만족해요.

그런데 어느 날, 변호사가 바틀비에게 문서 검토를 부탁하자 바틀비가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하지 않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네? 뭐라고요? 변호사도 황당하죠. 그런데 바틀비는 화를 내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아주 조용하고 담담하게, 그 한마디를 할 뿐이에요. 이후로 바틀비의 거절은 점점 범위가 넓어져요. 심부름도, 다른 업무도, 나중엔 필경 일 자체도 거부해요. 그러면서도 사무소를 떠나지 않고 자

기 자리에 서서 창밖의 벽돌 담장을 멍하니 바라봐요. 마치 세상과 담을 쌓기로 마음먹은 것처럼요.

변호사는 처음엔 짜증이 나고, 그다음엔 이상하게도 연민이 느껴지고, 나중엔 무서울 정도로 당황해요. 화를 내려 해도, 바틀비의 조용한 눈빛 앞에서 말문이 막혀버리죠. 결국 변호사는 바틀비를 내쫓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사무소를 이전해버리는 황당한 선택을 해요. 세입자가 쫓겨나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 도망치는 셈이에요.

바틀비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게으른 건지, 반항하는 건지, 아니면 마음이 아픈 건지. 소설은 그 이유를 끝까지 시원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다만 마지막에 아주 짧은 힌트가 나와요. 바틀비가 과거 우체국의 '죽은 편지 처리부'에서 일했다는 소문이에요. 수신인에게 닿지 못하는 편지들을 매일 소각하던 곳이죠. 사랑의 고백, 살려 달라는 편지, 용서를 비는 말들이 전부 재가 되는 걸 하루하루 지켜봤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엔 대체 무엇이 남았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모든 일을 거부하면서 바틀비는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음식마저 거부하다 마당 한편에서 조용히 숨을 거둬요.

대략 난감한 기분이 들 거예요. 속 시원한 해답도, 납득할 만한 이유도 끝내 주어지지 않거든요. 바틀비가 왜 그랬는지, 그 '하지 않겠다'라는 말의 진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작가는 끝까지 말해주지 않아요. 어쩌면 멜빌은 답을 주려 한 게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대신 이런 질문을 슬쩍 던지는 거죠. 당신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있나요? 하기 싫은 일을 거부조차 못한 채 마지못해 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작가는 “아, 바틀비여! 아, 인간이여!”라고 하면서 작품을 마무리해요. 왜 그랬을까요? 바틀비를 통해 작가는 무엇을 말하려 했을까요? 명쾌한 정답이 있지는 않아요. 정답보다는 진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독자들에게 '생각' '고민'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답이 아닌 질문,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더 많은 경험과 생각을 통해 각자 스스로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전 남해상주중 교장

사장님과 알바 근로계약서 쓰기... 당연한 권리죠



박기태 변호사의
법으로 떠나는 모험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아르바이트생.

게티이미지뱅크

용돈을 직접 벌기 위해, 혹은 사회를 미리 경험해보고 싶어서 생애 첫 아르바이트에 도전하는 10대가 많습니다. 교실이라는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 진짜 돈이 오가는 현실 사회로 나가는 첫 번째 퀘스트라고 할 수 있죠.

면접을 통과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한 첫날, 사장님이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다 가족같이 일하는 분위기야. 계약서 같은 딱딱한 건 생략하고, 내일부터 편하게 일하자!”

친근하고 따뜻하게 들리지만 사실 이것이야말로 아르바이트 정글에 숨겨진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오늘은 이 현실 세계에서 호구가 되지 않고 안전하게 퀘스트를 마칠 수 있도록 반드시 챙겨야 할 법률 아이템을 소개합니다.

게임을 할 때 명확한 룰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힘센 사람 마음대로 흘러가고 약한 사람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바이트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매우 냉정하고 이성적인 경제 활동입니다.

가족 같은 유대감은 일을 하면서 천천히 쌓아갈 수 있지만, 일의 시작은 반드시 명확한 룰 위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룰이 없다면 나중에 월급이 덜 들어오거나 약속한 시간보다 더 오래 일하게 됐을 때 결국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피곤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하루 근무 시간, 휴게 시간, 시급, 급여 지급일 등 중요한 내용이 모두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가끔 계약서를 먼저 요청하기가 눈치 보인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괜히 유별난 사람으로 보일까 걱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원을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은 고용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는 부탁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그 안의 내용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반드시 챙겨야 할 두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첫째, 최저임금입니다. 아무리 일이 쉽거나 처음 배우는 수습 기간이라 해도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

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수습 기간 임금을 일부 감액할 수 있는 경우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한해, 최대 3개월 동안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방학 동안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최저임금을 100% 지급받아야 합니다.

둘째, 주휴수당입니다. 많은 아르바이트생이 놓치는 권리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약속하고, 결근 없이 그 시간을 모두 채웠다면 하루는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성실하게 일한 대가로 주어지는 법적 보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요구에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꼭 알아둬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 지각비를 내라고 한다면? (위약 예정의 금지)

지각을 이유로 하루치 임금을 통째로 깎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법은 근로로 인해 발생할 손해를 미리 금액으로 정해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각을 했다면 실제로 일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차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한다면? (해고 예고수당)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언제든지 즉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를 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해고 예고수당입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결코 무례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좋은 고용주는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는 사람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알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로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약속이자, 서로를 믿고 일할 수 있게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은 ‘가족 같은 분위기’라는 말이 아니라 당당히 요구해 문서로 남은 약속, 바로 한 장의 근로계약서입니다. 법무법인 한중변호사

문장이 엉키는 진짜 이유, 해부해 보면 보인다

맞춤법은 틀리지 않았고, 분명 길게도 썼는데 왜 자꾸 어색하다는 말을 들을까요?

문장이 엉키는 이유는 생각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말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한 문장에 모든 내용을 담으려다 보니 주어와 서술어는 멀어지고, 비슷한 표현은 반복되며, 필요 없는 말이 덧붙습니다. 독자는 숨이 차고, 문장은 중심을 잃습니다.

좋은 문장은 감각의 산물이 아니라 정리의 결과입니다. 엉킨 문장을 해부해 보면 원인은 단순합니다. 군더더기를 덜어내고, 중복을 지우고, 문장을 끊어 주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문장은 놀라울 만큼 또렷해집니다. 이번 화에서는 지후의 실제 문장을 수술대에 올려 직접 고쳐 보겠습니다.



이상수 선생님의 글쓰기 교실

지후: 삼촌, 또 들었어. 문장이 엉킨다”고. 난 자세히 쓰려고 한 건데.
삼촌: 자세히 쓰는 것과 길게 쓰는 건 다르지. 네 문장을 하나 봐보자.

처음 문장
“나는 오늘 학교에서 친구와 있었던 일 때문에 기분이 나빴던 이유는 그 친구가 나에게 장난이라고 했지만 내가 듣기에는 기분이 상하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삼촌: 읽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어?
지후: 길어. 숨이 차.
삼촌: 한 문장 안에 사건, 감정, 이유가 다 들어 있어서 그래. ‘문장 수술 테이블’에 올려보자.
◆문장 수술: 흐트러진 문장 해부하기
1단계 군더더기 제거
“있었던 일 때문에”, “나에게”처럼 없어도 되는 표현을 덜어낸다.
→ “오늘 학교에서 친구의 말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
2단계 중복 제거
“기분이 나빴던 이유”, “기분이 상하는 말”은 같은 감정을 반복한다. 감정 표현은 한 번만 쓴다.
3단계 단문 전환
→ “그 친구는 장난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상처를 받았다.”

고친 문장
“오늘 학교에서 친구의 말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 그 친구는 장난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상처를 받았다.”

지후: 진짜 깔끔해졌다. 같은 말인데 전혀 다르게 느껴져.
삼촌: 문장이 길다고 성숙해지지 않아. 명확할 때 힘이 생긴다.

지후: 난 설명을 많이 해야 잘 쓰는 건 줄 알았어.
삼촌: 그게 과잉 설명이야. 예를 들어보자.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환경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후: 나 이런 표현 자주 써.
삼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와 “생각한다”가 겹치지. → “나는 환경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바꾸는게 좋아. 여기서 더 줄여본다면?
지후: “환경 보호는 필요하다.”
삼촌: 그렇지. 핵심만 남기면 문장이 선다.
지후: 그럼 무조건 짧게 쓰는 게 답이야?
삼촌: 무조건은 아니지만, 엉킨 문장은 먼저 끊어보는 게 기본이야. 길게 붙이기 전에 짧게 세워봐.
지후: 다른 문장도 해부해 보자.
삼촌: 좋아. “요즘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이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후: 보기만 해도 어지럽다.
삼촌: 세 단계로 정리하자.
• 1단계 정리 “요즘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 2단계 분리 “이를 문제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나는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3단계 핵심 강조 “문제는 사용량이 아니라 사용 방식이다.”
지후: 완전히 다른 글 같아.
삼촌: 생각을 같아. 엉킨 실을 풀었을 뿐이지.
지후: 이제 알겠다. 내가 생각이 많아서가 아니라, 한 번에 다 말하려고 해서였네.
삼촌: 맞아. 문장은 욕심을 줄일수록 또렷해져.
지후: 앞으로는 길게 쓰기 전에 자르기부터 해볼게.
삼촌: 세 가지만 기억해. 첫째, 불필요한 말을 덜어내라. 둘째, 겹치는 표현을 줄여라. 셋째, 길면 끊어라.
지후: 문장도 다이어트네.
삼촌: 군살이 빠지면 근육이 보이지. 글도 마찬가지야.
교육실천이음연구소연구위원

글쓰기 콕콕! 문장이 어색해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부하고 정리할 수 있는가?
문장 수술의 기본 단계
1. 군더더기 제거
2. 중복 표현 삭제
3. 단문 전환

허겁지겁 달빛소식 먹다가, 결국 사고를 치는데...



하미와 동이들의
꼬불꼬불 지식모험 ②



ChatGPT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오만과 편견의 씨앗이 알렉스의 생각주머니 속으로 쏙 들어왔어요. 오만과 편견은 짝꿍이거든요. 알렉스가 ‘오늘의 세상 이야기’ 중에 가장 안타까운 소식을 되뇌며 말을 했어요.

“사고가 너무 많이 나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빨리빨리병’ 때문에 사람들이 앞다투어 속도 경쟁을 하더니만 드디어 불상사가 생겼네. 사람들은 자신을 보지 않고 외부 현상 탓만 하는데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는 법이잖아.”

“대단하다, 대단해. 마치 지식 탐험가가 강림한 것 같아.”

어느새 알렉스 곁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뽕뽕나라에서 처음으로 멈춰 서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알렉스는 기대를 했어요.

“사람들이 나의 ‘느림의 미학’을 알아주는구나. 빨리빨리병이 좀 고쳐지면 보람이 있을 텐데.”

그렇지만 현실은 알렉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흘러갔지요. 사람들은 알렉스가 바뀌기를 원했어요.

“지식 탐험가! 빨리빨리 말해줘. 우리는 정확한 것보다 빠른 것이 좋단 말이야.”

알렉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제대로 읽어야 하니까요.”

사람들은 계속 보냈어요.

“제대로고 뭐고, 지금당장 이 순간에 알아야 한다고.”

“네가 말하는 건 다 믿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말해도 돼.”

알렉스는 당황했어요. 더 놀란 것은 자기 자신이 사람들 말에 동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읽으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서두르면 내용이 틀릴 수도 있는데... 아니야! 그래도 사람들이 나만 믿고 있는데 실망을 시킬 수 없잖아! 그들이 원하면 들어주는 것이 예의 아닌가?”

두 마음이 싸우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계속 빨리 알려달라고 강요하고 압박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려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했어요. 그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안 그래 알렉스?”

한 번 시도를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두 번, 세 번, 계속할수록 양심은 말하지 않았어요. 양심의 소리가 안 들리면 더 편안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불안했어요. 불안한 것을 안 들키려고 더 잘난 척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기 전에 내가 최고가 되어야 해.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먼저 공격할 거야. 어떻게 해야 하

지? 아, 알았다! 달빛소식을 더 빨리 더 많이 먹어야 해! 나는 역시 똑똑해.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야’라는 엉터리 생각을 굳게 믿었어요.

알렉스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달빛소식 구매자의 눈빛에서 사냥꾼의 눈빛으로요. 달빛소식에 대한 그만의 의식을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햇빛과 그림자도 살피지 않았고, 정장으로 차려입지도 않고 달빛수다에도, 공원에도 가지 않았어요. 그 대신 새벽부터 밤중까지 달빛소식을 찾아 헤매고 다녔어요. 길가에 나뭇굴고 있는 구겨진 달빛소식, 갈기갈기 찢어진 달빛소식은 물론이고 쓰레기통에 있는 오물이 잔뜩 묻은 더러워진 달빛소식까지 건성으로 읽고 어기적어기적 삼켜 버렸어요.

이런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알렉스의 배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내 배가 왜 이리지?” 하고 고개를 가우뚱거렸어요.

하지만 “소화가 안 돼서 그러냐? 곧 나아지겠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 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알렉스가 큰 사고를 쳤어요.

‘며칠 후 뽕뽕나라에 불이...’라고 적힌 찢어진 달빛소식을 먹은 그날이었어요.

“며칠 후 뽕뽕나라에 불이 난답니다. 빨리 피하셔야 해요”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사실 내용 뒷부분은 ‘불이 환하게 켜지는 축제가 열립니다’였는데 앞부분만 보고 자기 멋대로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알린 거예요.

사람들은 기가 막혔어요.

“피하긴 뭘 피해. 축제를 피하라는 거야?”

“웃기고 있네. 완전히 엉터리잖아.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해님이 동쪽에서 남쪽으로 조금 이동할 즈음 알렉스의 배가 뽕뽕해져 곧 터질 것만 같았어요. 그때 알렉스는 또 다른 큰 사고를 냈어요.

‘내일 오전... 안개... 사라지다’라는 군데군데 글씨가 날아간 달빛소식을 먹고 “내일은 세상이 안갯속으로 사라지는 날이라네요. 다시는 해를 못 볼지도 몰라요” 하고 자기 생각을 넣어 사람들에게 말을 했어요.

원래는 ‘내일 오전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지만 오후부터는 차차 사라지겠습니다’라는 기상예보였거든요.

사람들은 알렉스를 비난했어요.

“알렉스 너 뭐하는 거니? 장난해?”

“해가 없어진다고 소설 쓰지 말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 달란 말이야.”

알렉스는 몸부림을 치며 부르짖었어요.

“내가 틀렸다고?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난 언제나 옳아. 나만큼 빨리 알아내는 녀석 있으면 어디 나와 보라고 해! 너희들이 틀린 거지. 내가 아니라고!”

오만과 편견의 씨앗이 자라나서 알렉스의 마음에 딱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잘못을 인정하는 건 곧 내가 없어지는 거였어요.



AI는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

MICA 국제학교 11학년 김학진

“기계가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더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게 됐습니다. 과제를 돕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AI를 보며 우리는 혼란을 느낍니다. 이 기술은 우리에게 단순히 도움을 주는 도구일까요?

AI의 핵심인 인공지능망은 인간의 뇌 구조에서 출발했습니다. 수백억 개의 신경세포가 연결돼 학습하는 뇌처럼, AI도 방대한 데이터를 반복 학습하며 정보 간의 정교한 연결망을 구축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 덕분에 겉으로 보기에 AI와 인간의 학습 방식은 매우 흡사한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고의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인간은 정보를 떠올릴 때 과거의 기억과 감정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지만, AI는 특정 정보 뒤에 올 확률이 가장 높은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계산할 뿐입니다. 즉 AI는 인간과 다르게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은 “AI가 인간을 언제 따라잡을 것인가”가 아닌 “인간의 사고는 무엇이기 때문에 아직 대체되지 않는가”입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오히려 인간의 특별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AI와 함께 살아갈 미래에서 인간만이 지닐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 질문을 해야 합니다.



AI시대, 수학이 중요한 이유

양서고등학교 1학년 유준서

인공지능(AI)이 발전하면서 복잡한 문제의 풀이 과정을 사람보다 빠르게 제시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떤 앱은 사진만 찍으면 수학 문제의 풀이 과정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수학을 굳이 배워야 할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고,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필요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을 대신해 주는 기술이 많아질수록 무엇을 계산해야 하는지 질문하는 힘은 더 중요해집니다. 즉 AI 때문에 사라지는 것은 수학이 아니라 단순 계산 중심의 수학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복잡한 계산을 사람이 직접 해야 했지만, 지금은 기계가 그 일을 대신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학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상황을 분석하며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AI는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인간은 의미 있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한 계산 기술로서의 수학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문제의 본질을 탐구하는 사고의 도구로서 수학을 배워야 합니다. AI가 발전할수록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계산 능력이 아니라 깊이 있는 사고력이며, 그 사고의 힘을 길러주는 학문이 바로 수학이기 때문입니다.



‘개(犬) 편한 세상’을 위한 과제

대구제일여자상업고등학교 1학년 이아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3월부터 시행되면서 일정 기준을 갖춘 음식점과 카페에서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정식으로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법적 문턱이 낮아졌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시선까지 곧바로 따뜻해진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3살이 된 말티푸를 가족처럼 키우는 반려인이자 학생 기자의 시선에서 본 현실은 법 개정 소식과는 사뭇 다릅니다. 법적으로 동반 입장이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반려견과 함께 갈 수 있는 식당을 찾기는 이전보다 더 어려워진 기분입니다. 강화된 위생 시설 기준이나 안전 관리 책임에 부담을 느낀 업주들이 아예 ‘노펫존’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법안이 종이 위의 글자로만 남지 않으려면 단순히 ‘허용하느냐, 금지하느냐’의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영업자가 현실적으로 시설 기준을 맞추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반려인들은 비반려인의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법이 모든 갈등을 한 번에 해결해줄 수는 없습니다. 반려견과의 외식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행복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편함 없는 풍경이 될 때 비로소 이번 개정안이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인 매장 확산, 편리하기만 할까?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2학년 박지후

요즘 길을 걷다 보면 일명 ‘아이스크림 할인점’이라 불리는 무인 매장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간편한 결제 방식과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인 매장이 늘어나면서 직원이 없는 운영 방식을 악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9일 대전에서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와 무인 인형 뽑기 가게 등 무인 점포 16곳을 돌며 현금과 물건약 400만원 상당을 훔친 일당이 검거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무인 매장에서 발생하는 절도나 시설 훼손 문제는 개인의 일탈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무인 매장은 직원 없이 운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양심과 사회적 신뢰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편리함을 기반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무인 매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용하는 사람들의 책임 있는 태도와 시민의식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무인 매장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인 매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책임 있는 이용 문화가 함께 자리 잡아야 합니다. 동시에 매장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노력도 이뤄져야 합니다.

‘수프 캔’이 미술관에 걸린 이유는?



대전 시립미술관
앤디 워홀展



대전 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앤디 워홀’ 기획전.

지금 대전 시립미술관에서는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어요. 이번 전시는 미국 미술사학자이자 컬렉터인 폴 마레샬이 약 30년에 걸쳐 수집한 희귀 자료가 포함된 300여 점이 대전에서 처음 공개되는 자리예요. 2027년 미국 순회전을 앞두고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는 점에서 많은 관람객의 기대와 주목을 받았어요.

워홀은 현대미술에 한 획을 그은 인물이에요. 코카콜라 병과 매릴린 먼로 초상, 그리고 ‘캠벨 수프 캔’ 시리즈로 전 세계 대중에게 각인되었죠. 그는 일상적인 사물을 예술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며 누구나 알고 있는 이미지도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며 20세기 후반 미국 미술을 대표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죠.

이번 전시는 워홀이 상업적 이미지를 어떻게 예술로 전환했는지를 보여주는 작업들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대표작인 캠벨 수프 캔을 비롯해 바나나 그림, 다양한 소비 브랜드와 협업한 결과물들이 이어지죠. 비달사순 헤어 제품, 소니 베타데이프, 페리에 등 익숙한 상표가 등장해 관람객들의 재미를 더해요.

작품 설명을 자세히 읽다 보면 워홀이 자주 활용한 ‘실크스크린 기법’도 눈에 띄어요. 실크스크린은 천을 팽팽히 고정된 나무 틀에 잉크를 통과시켜 인쇄하는 판화 방식입니다. 좌우가 뒤바뀌지 않고,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여러 장을 제작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이 덕분에 포스터나 의류, 포장 디자인 등에도 널리 쓰여 왔어요. 워홀은 이 방식을 통해 이미지를 반복 배열하며 기계적이고 대량생산적인 느낌을 강조했습니다. 단 하나의 원본을 중시하던 기존 미술의 가치관과 달리, 그는 복제 가능성 자체를 창작의 일부로 받아들였던 셈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장에서 찍어낸 생산품 역시 예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죠.

상업 브랜드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와 음악 분야를 다

룬 공간도 눈길을 끌었어요. 전시장 코너를 돌면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펑키한 음악과 함께 새로운 작업물이 이어져요. 이곳에서는 워홀이 록 음악계와 교류하며 만들었던 앨범 커버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앨범의 내용을 그대로 그리는 대신, 추상적 이미지나 상징적인 도형을 활용해 음악의 분위기를 암시하는 방식을 즐겨 사용했어요. 실제로 전시된 커버 아트들은 음악을 듣지 않아도 어떤 감정을 전달하려고 했는지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었죠. 워홀이 다양한 장르와 협업하며 시각 예술의 범주를 넓히려 했던 시도가 잘 드러나는 부분이었어요.

관람객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가족과 함께 전시를 찾은 김도현 씨(35)는 “광고에서 보던 이미지가 사실 워홀 작품이었다는 걸 알고 놀랐어요”라며 “익숙한 그림들이 많아서 더 재밌게 봤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전시장을 찾은 학생 윤지훈 씨(21)는 “평소에 봐왔던 이미지가 작품으로 걸려 있는 게 신기했어요. ‘이게 워홀 작품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라고 이야기했죠. 이러한 반응은 워홀의 작업이 이미 대중의 일상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어요.

후반부에서는 워홀이 어떻게 스스로를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 갔는지도 조명돼요. 그는 항상 은색 가발과 선글라스, 과장된 액세서리를 착용해 독특한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미디어의 힘을 잘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한 예술가였죠. 이 과정에서 그는 그림만 그리는 화가를 넘어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어요. 전시장에 걸린 자화상과 다양한 기록물은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줘요.

무엇보다 이번 관람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메시지는 예술이 반드시 어려울 필요는 없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보는 광고, 제품 디자인 속에도 충분히 예술적 가치가 숨어 있고, 예술이란 결국 주변의 사물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해줘요.

윤성아 인턴기자

입시 초보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읽는 방법

이달 말이면 각 대학이 '대학입학 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합니다. 이 계획안은 대학이 어떤 기준으로 학생을 뽑을지 정리한 거라 모집 단위별 선발 인원은 물론, 수시·정시 등 전형별 평가 방법, 학생부교과 전형의 내신 반영 방법, 학생부종합 전형의 평가 항목, 정시 전형 반영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이 자료를 참고해 2028학년도 대입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요. 특히 이번 대입은 고교학점제, 내신 5등급제, 문·이과 통합 수학능력시험이 처음 적용되는 해라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특히 높습니다. 계획안이 공개되면 어떻게 읽고 해석해 나가면 좋을지 2027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시행계획을 기준으로 남윤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소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입시 완전정복

– 입시 초보라면 어디부터 읽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은 전형 유형입니다. 수시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실적 4가지로 나뉘고 정시는 수능(일반)과 실기·실적으로 구분됩니다. 이 기준은 모든 대학에서 동일하게 표시됩니다.

전형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세부 전형 이름만 보고 판단 시 헛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경희대 지역균형 전형은 학생부교과 전형으로 분류되지만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은 학생부종합 전형입니다. 이름보다 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전형 유형 다음엔 어떤 것부터 체크하면 될까요?

세부 전형 이름입니다. 대학마다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혼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부교과 전형은 고려대에서는 학교추천 전형, 연세대는 추천형, 경희대는 지역균형 전형으로 표기됩니다. 고려대의 경우 학생부교과 전형은 학교추천 1개, 학생부종합 전형은 학업우수, 계열적합, 고른기회, 다문화, 재직자, 사이버국방 6개 전형으로 나뉩니다.

그다음, 지원 자격도 꼼꼼히 봐야 합니다. 고려대 학교추천 전형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5학기 교과 성적에 있는 사람만 지원 가능합니다. 즉, 고등학교 3학년 학생만 지원할 수 있으며,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를 이수한 학생이어야 합니다.

졸업(예정)자라고 표시되면 고3뿐 아니라 n수생도 지원 가능합니다. 추천 인원 제한도 대학마다 다릅니다. 고려대는 추천 인원이 12명으로 제한되므로 학교내 상위권 학생에게만 추천 카드가 돌아갑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고려대의 경우 전교 12등 이내에 들어야 추천 카드를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성적 관리를 해야 합니다. 건국대 처럼 추천 인원 제한이 없는 대학은 성적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 평가 방식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까요?

학생부교과 전형은 내신 등급을 활용한 정량평가가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부교과 전형의 정량평가 요소는 교과, 학생부(교과), 정량평가로 표기됩니다. 예를 들어 고려대 학생부교과 전형은 학생부(교과) 90%+서류 10%로 평가합니다. 즉, 내신 성적이 거의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반면 학생부종합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한 정성평가가 중심입니다. 예를 들어 계열적합 전형은 1

단계에서 서류 100%로 모집 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고 2 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합니다. 또한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 고2 학생 입장에서 지금 준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내신 성적 관리입니다. 대학입학 전형 시행계획은 대학마다 30~50장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라 모든 내용을 완벽히 숙지하고 비교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대학이 어떤 전형을 운영하는지 전형별 특징이 무엇인지 정도만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특히 2022교육과정(2028학년도 대입)은 교과 중심 교육 과정입니다. 학생이 희망 전공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관련 과목 성적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학년 첫 번째 중간고사는 내신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교과와 종합 전형에서 내신의 중요성 차이가 있나요?

교과 전형은 내신이 거의 전부이고, 종합 전형도 내신이 기본입니다. 종합 전형에서는 서류와 면접이 추가되지만 내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학기별 성적 관리와 선택 과목 전략을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 입시 초보에게 한마디 조언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고2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보다 성적입니다. 대학별 전형 계획에서 전형 유형, 세부 전형, 지원 자격, 평가 방식을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내신 확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현재 내신이 1년 반 뒤 수시·정시 결과를 결정합니다.

배윤경 기자

도움말 남윤곤 메가스터디입시전략연구소장

고려대학교 학생부교과 전형(학교추천전형) 반영 방법

구분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비고
일괄 합산	학생부(교과) 90%+ 서류 10%	학생부(교과): 교과평균등급점수 반영 서류: 학생부 종합평가

고려대학교 학생부종합 전형(계열적합전형) 반영 방법

구분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비고
1단계	서류 100%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의 5배수 선발 서류: 학생부 종합평가
2단계	1단계 성적 60%+ 면접 40%	면접: 제시문 기반 면접

공인번호 : 재정경제부 제 2024-254호
등록번호 : 2012-0277호



*공식 인스타그램 @mk.teenz



*공식 유튜브 채널 매테나

53회 경제·금융이해력인증시험



틴매경 TEST



시험일
2026년 5월 30일(토)

접수기간
2026년 4월 20일(월)
~5월 18일(월)

자격명 : 경제금융이해력인증시험(틴매경TEST) | 자격의 종류 : 국가공인민간자격(A+,A,B) / 등록민간자격(C,D)
응시료 : 2만원 | 환불규정 : 정기접수 마감일까지 환불 신청시 응시료 전액 환불(송금수수료 제외)정기접수 마감일 이후 환불 불가
발급기관 : 매일경제신문사 | 대표자 : 장대환, 장승준, 위정환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90(매경미디어센터)
연락처 : 02-2000-2469 | 홈페이지 : <http://mktest.org> | 이메일 : mktest@mk.co.kr